

회원사 동향

MEMBERSHIP TREND

LG전선(주), 파키스탄에 광케이블 4백만달러 수출

LG전선(주)대표 구자열은 최근 파키스탄 제2 장거리 통신 사업자(LDI : Long Distance International)인 월드콜(WorldCall)사와 광케이블 4백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세계 1위 기업인 코닝(Corning)을 비롯해 세계적 광통신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LG전선은 코닝과 알카텔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 이번 수주로 향후 예상되는 파키스탄 백본망 프로젝트에서 유리한 공급자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WorldCall사의 4백만달러 규모의 백본망(Backbone Network) 프로젝트는 파키스탄 정부의 통신기간망 사업의 전초전 성격이 짙어 광통신 관련 세계적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불꽃튀는 경쟁을 벌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 연말부터 시작돼 내년 10월경 설치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번에 LG전선이 공급하게

될 광케이블은 G.652, G.655광섬유가 포함된 장거리 용이다. 특히 G.655 광섬유는 고도의 제조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LG전선, 코닝, OFS 등 소수 기업에서만 제조가 가능하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기준이 적용되는 G.652 광섬유가 포함된 광케이블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범용 제품이며, G.655는 일반 광섬유와는 달리 분산값(신호의 퍼짐현상)을 최소화해 장거리 통신망에 유리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LG전선은 지난 9월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FTTH(Fiber to the Home 광가입자망)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통신사업자로 선정돼, 1차로 4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1,500만달러 규모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올 연말부터 시작해 2005년 하반기 상용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성파워텍(주), 변전설비 시운전성공

보성파워텍(주)대표 임도수는 변전설비인 건식 분로리액터(shunt reactor) 시운전을 마치고 한전과 납품계약을 맺었다

분로리액터는 심야시간대에 상승하는 송전선로의 전압을 억제하고 일반 수용가의 과전압 발생요인을 없애는데 필요한 설비로 종전 설비와 달리 철심과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아 소음발생이 없는데다 화재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기존 분로리액터에 비해 최소 단위 용량당 1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운반할 수 있고 설치 부지면적을 종전의 5분의1로 축소할 수 있다.

보성파워텍은 지난 99년 중소기업 협력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한전으로부터 개발비의 60%를 지원받아 이 설비를 개발, 지난 1년간 영서변전소에서 시운전 해 왔으며 "이번 계약 성사로 양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설비증설과 생산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